

강문석 동아제약 이사 “백의종군”

경영권 확보의사 없음 밝혀 …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가처분 기각으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등 현 경영진과 경영권 갈등을 빚었던 강문석 이사가 경영권 확보의사가 없음을 전격 천명했다.

수석무역 최대 주주이자 동아제약 이사인 강문석 이사는 10월26일 <강문석 이사 인사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앞으로 아버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적극적으로 따르며 형제간의 화합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께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아버님께 불효했던 아들로써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자신이 추천한 5명의 이사후보 중 기관과 컨설팅 기관의 지지를 가장 높게 받았던 이준행 교수에 대해서마저 주주총회에서 이사후보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해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10월31일 예정대로 열릴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문석 이사가 추천한 나머지 이사후보 4명 모두 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문석 이사가 백의종군 의사를 전격 발표한 것은 10월25일 법원이 강문석 이사측이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주 의결권 행사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데 따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지지를 받을 명분도 가능성도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석무역 관계자는 “임시 주주총회를 제기한 이유는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편법으로 매각해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은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신임도 차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제기한 명분이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앞서 24일 미래에셋투자가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고 공시함에 따라 동아제약은 32.9%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자사주 의결권 7.5%까지 합치면 우호지분이 약 40.4%까지 늘어나 현 경영진의 우위가 확실시됐다.

강문석 이사가 동아제약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관계자는 “앞으로 아버님의 뜻에 적극 따르겠다는 뜻으로 이사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또 “강문석 이사로부터 공식적인 이사추천 철회안을 받거나 사전 조율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강문석 이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강문석 이사측이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면서도 “임시 주주총회와 고소 건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6>